

## 중학생의 가족수업 참여도와 부모자녀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

주현정\* · 최새은\*\*†

\*다정중학교 교사 · \*\*한국교원대학교 가정교육과 부교수

---

###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on the Association Between Middle School Students' Academic Engagement in Family Education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Joo, Hyunjung\* · Choi, Saeun\*\*†

*\*Teacher, Dajeong Middle School*

*\*\*Associate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 Abstract

This study attempts to analyze the mechanism of the academic engagement of middle schoolers participating in family education in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Education (T&HEE), their resilience, and their parent-child relationship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mediating effect of resilience on the association between academic engagement a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The participants of the study were 194 middle schoolers in Sejong-si.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PROCESS macro (Model 4), a method for verifying the mediating effect using bootstrapping.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re are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among academic engagement, resilience, a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Second, the result shows resilience as a complete mediating effect on the association between academic engagement and the parent-child relationship. These findings suggest the way to improve the relationship of adolescents with their parents is to enhance the middle school learners' resilience by actively participating in family education classes in T&HEE.

Key words: 가족수업(family education), 기술·가정 교과(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education: T&HEE), 부모자녀관계(parent-child relationship), 수업참여도(academic engagement), 회복탄력성(resilience)

---

† 교신저자: Choi, Saeun, 250 TaeseongTabyeon-ro Gangnae-meyon Heungdeok-gu Cheongju-si Chungbuk,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28173, Republic of Korea

Tel: +82-43-230-3734, Fax: +82-43-231-4087, E-mail: Saeun@knue.ac.kr

본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임.

## I. 서론

청소년기는 급격한 신체 성장과 2차 성징이 나타나며 심리적, 인지적, 사회적으로도 성인의 면모를 갖추어 가는 시기다(Lee et al., 2012). 청소년은 성년기에 이르기까지의 중요한 성장기에 여러 발달 능력의 토대를 가족 안에서 구축하며 부모와 지속적인 상호관계를 맺는다(You, Kim, & Kim, 2018). 부모로부터 독립하고 정서적 의존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청소년의 발달 특성은 태어나서부터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오던 부모와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부모자녀관계에서 독립과 의존, 자율과 애착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예기치 못한 다양한 문제행동과 가족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청소년기의 부모와의 갈등은 일상생활의 문제로 빈번하게 발생하며 부모가 인식하는 것 이상으로 청소년에게 스트레스가 된다(Lee et al., 2012). 이러한 부모와의 갈등은 청소년이 겪는 다양한 스트레스원이 되기도 하나 가족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로부터 회복의 과정을 함께하며 청소년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다(Yoon, 2018).

청소년기에 부모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 갈등, 문제상황 등의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은 관계의 중요한 힘이 될 수 있다. 회복탄력성은 어려운 순간에 맞닥뜨렸을 때 이에 적응하는 능력,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하며, 스스로의 훈련과 노력으로 높아질 수 있다(Kim, 2011). 긍정심리학에서 등장한 회복탄력성이라는 개념은 회복탄력성 형성을 돕는 보호요인과 이를 저해하는 위협요인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보호요인은 위협요인으로부터 완충 역할을 하면서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는 개인적 또는 환경적 요인을 말하고, 위협요인은 심리·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발전시킬 가능성을 증대시키거나 기대되는 능력에 도달되는 것을 방해하는 조건들을 의미한다(Hong, 2006).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는 보호요인은 개인, 가족, 학교, 사회의 수준에서 살펴본 결과, 학교와 사회에서의 긍정적 관계보다 가족 수준에 해당하는 부모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이 지각한 가족의 지지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았고(Min & Lee, 2013),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할수록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이 높으며(Cho, 2005), 사회적 지지 중 부모의 지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Song & Sung, 2010). 선행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이 부모, 친구, 교사 등 주변 관계에서 많은 영향을 받으며, 청소년 시기는 상대적으로 친구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부모의 영향력이 줄어드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부모자녀관계는 청소년들의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을 저해하는 위협요인에 관한 연구에서도 가족의 위협요인이 청소년에게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부모의 과잉적 양육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회복탄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Kim & Lim, 2013). 가정의 위협요인은 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또래관계의 질을 통해 문제행동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며(Han & Do, 2008),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부갈등(Jeong, Kim, & Lee, 2009)과 가정폭력 경험(Lee, 2007)과 같은 가족문제도 회복탄력성을 낮추는 효과를 보여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에서 부모자녀관계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회복탄력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부모인 만큼, 부모자녀관계가 좋지 않아 회복탄력성이 높지 않은 아이는 다른 위험 요소로부터 취약하여 스스로 회복하지 못하고 가족관계가 악화되는 악순환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가족체계이론에 따르면 반드시 그러한 결과만이 예상되는 것은 아니다.

가족체계론적 관점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간의 유대라는 것은 결정론적이고 선형적인 인과 관계가 아니라, 가족체계의 안과 밖에서 ‘다중적이고 반복적(multiple and recursive)’으로 만들어지는 영향 관계이다(Walsh, 2011, p. 29). 가족체계론적 관점은 다양한 가족 연구와 실천에 투영되었는데, 다양하고 복잡해진 현대 가족생활이 다른 미시체계와의 협력을 통해 가족 기능이나 회복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설명해준다(Walsh, 2011). 즉, 부모자녀관계가 좋지 않은 아이일지라도 그 아이의 또 다른 미시체계인 학교를 통해 회복탄력성이 후천적으로 키워진다면, 이것이 가족체계 내에서 가족 기능을 향상시키는 자원으로 작동하며 선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에서 가족수업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삶에서 가정생활의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가족과의 건강한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MOE], 2015). 가족수업에서는 가족 구조와 기능 변화, 가족원의 역할, 가족관계, 가족의 의사소통과 갈등, 성폭력과 가정폭력 등의 내용이 다루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청소년기에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고, 가정생활과 관련된 신변안전 사고에 대처 방법을 익혀 건강한 가족으로 회복하기 위한 치유 방안 등을 실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힘을 기르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학습자의 관계형성능력, 실천적문제해결능력 등의 교과 역량을 향상하고자 하는 교과의 목표가 가족 단원에서 구체화되고, 교과 수업에 참여하는 청소년 개인의 능력 향상을 통한 가족체계 안에서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기술·가정 교과의 가족수업에서 지향하는 학습목표 성취정도를 학습자 개인의 수업참여도, 회복탄력성을 통해 가족체계 안의 부모자녀관계의 변화를 분석한다면, 학교와 가정이라는 미시체계 간의 연계와 개인 및 가족 수준에서 체계의 역동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수업참여도는 학생들이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하며(J. Kim, 2014). 학습자가 교실 상황에서 수업 활동 중에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몰입하는 행위(Lee, 2014)이다. 수업참여도는 많은 선행연구들에서 성취도, 만족도와 같이 수업의 결과를 확인하는 변인으로 사용되고 있다(Lee, 2014). 그러나 정규 교육과정 안에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련의 교과 수업에서 학습자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를 전제하고 있지 않아 기술·가정 교과 수업에 참여하는 모든 학습자의 완벽한 학습 성취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학습자 개인의 수업참여 정도를 수업의 결과가 아닌 원인으로 설정하는 것은 교과가 지향하는 목표 성취 달성 정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변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중학교 정규 교육과정이라는 학교 체계 안의 가족수업을 통해 학습자의 수업참여 정도에 따른 학습자 개인의 역량 향상이 가족체계 내의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검증한다면, 가정과 수업을 통해 청소년들의 삶이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고, 청소년 가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가족수업 목표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의 가족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수업참여도와 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부모자녀관계의 매커니즘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중학생이

가족수업에 참여하는 정도와 부모자녀관계 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첫째, 수업참여도, 회복탄력성, 부모자녀관계 간의 상관관계는 어떠한가?
- 둘째, 수업참여도와 부모자녀관계 간에서 회복탄력성은 어떤 매개효과를 보이는가?

## II. 선행연구 고찰

### 1. 중학교 기술·가정 가족수업과 수업참여도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에서 가족수업은 가정생활 분야에 속한다. 가정생활 분야는 청소년기 발달 단계의 학습자들이 현재와 미래의 삶에서 가정생활의 행복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가족과의 건강한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길러주는 데 중점을 둔다(MOE, 2015). 구체적으로 중학교 기술·가정 가족수업은 인간 발달과 가족, 가정생활과 안전의 영역 안에서 변화하는 가족과 건강 가정, 가족관계, 가족의 의사소통과 갈등 관리, 성폭력과 가정 폭력 예방 등의 내용요소로 다루어지고 있다. 인간 발달과 가족 영역의 목표는 청소년기에 건강한 가족관계를 형성하는 것이고, 가정생활과 안전의 영역에서는 가정생활과 관련된 신변안전 사고와 대처 방법을 익히고 건강한 가족으로 회복하기 위한 치유 방안 등을 실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청소년의 생활 능력 향상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는 교과의 목표가 가족 단원에서 구체화되고 있어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향상을 통한 부모자녀관계 개선의 연결고리를 잘 보여주고 있다.

수업참여도는 학생들이 수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수업 전 준비, 수업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흥미와 관심을 갖는 정도를 말한다(Cho & Jang, 2016). 구분하여 보자면, 정서적, 인지적, 행동적 측면에서 능동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이다(J. Kim, 2014). 이는 정서적으로 학생과 학생, 학생과 교사가 상호작용하는 것, 인지적으로 학습자의

노력, 학습전략 사용 등의 자기 주도 학습의 개념과 혼합하여 사용하는 것, 학습자의 준비도, 태도 및 구체적인 행동을 수업 참여로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가 교실 상황에서 수업 활동 중에 적극적으로 몰입하는 행위(Lee, 2014)로 정의하고자 한다.

수업참여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가정과에서는 Cho와 Jang(2016)의 연구가 유일하다. Cho와 Jang(2016)은 가정교과에서 거꾸로 수업을 적용하여 중학생의 수업참여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여주었고, Yoo와 Lee(2018)의 연구에서는 가족생활 설계 영역에서 백워드 수업설계를 적용하여 학습자의 수업참여에 관한 내용을 수업만족도에 일부 포함하여 수업이 학습자의 수업만족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았다. 수업참여도에 관한 선행연구들에서는 성취도, 만족도와 더불어 수업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변인으로 사용되고 있어(Lee, 2014), 수업참여도를 단독 변인으로 교과와 관련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수업참여 정도가 높은 학습자는 학습을 하고자 하는 열의가 높고 학습내용을 내면화하고자 하며(J. Kim, 2014), 학업성취도도 높고, 학습내용을 자신의 삶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향이 크다(Choi, Chun, Ann, Jin, & Do, 2013). 또한, 가정과는 아니지만 체육 교과에서는 뉴스포츠에서 학습자의 수업참여도가 높을수록 체육교육에서 지향하는 자아존중감, 사회성, 창의성이 높아져 결과적으로 중학생의 수업참여도가 체육교육에서 목표로 하는 신체적 발달, 사회성 발달, 정서적 발달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의 연구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Kim, Lee, & Maeng, 2019). 이처럼 학습자 개인의 수업참여 정도는 다양한 교수·학습 설계 후 알아보는 수업의 결과변인이 될 수도 있지만, 교과교육 연구에서 해당 교과가 지향하는 목표 성취 달성 정도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원인변인이 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중학교 정규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기술·가정 교과의 가족수업에서 학습자의 수업참여도와 회복탄력성, 부모자녀의 애정적 결속 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수업을 통한 학습자 개인의 역량 향상이 가족 수준의 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는 가정과 수업을 통해 청소년들의 삶이 긍정적인 변화를 이루고, 청소년 가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가정과 수업 목표의 당위성 형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 2. 회복탄력성

회복탄력성은 삶에서 겪는 크고 작은 어려움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고, 오히려 위기를 딛고 일어서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생각할 수 있는 잠재적인 힘을 말한다(Kim, 2011). 이는 통제성, 사회성, 긍정성의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과 환경의 상호 역동적인 변화와 발달과정의 산물이다(Lee, 2016). 회복탄력성의 과거 연구는 이의 발현을 돕는 보호요인과 저해하는 위협요인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회복탄력성의 보호요인은 위협요인으로부터 완충 역할을 하면서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는 개인적 또는 환경적 요인을 말한다(Hong, 2006).

다양한 층위의 보호요인 중에서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에는 또래의 지지와 애착 관계보다 가족의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Min과 Lee(2013)는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중학생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높을수록 자아탄력성이 높았고, 자아탄력성에 영향을 주는 보호요인으로 가족의 많은 지지를 강조하였다. 또한 Cho(2005)는 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부모 애착,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어머니와의 애착 관계가 안정적이라고 생각할수록 회복탄력성이 높았다고 하였다. Song과 Sung(2010)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와 학교생활 적응, 삶의 만족 간의 관계에서 중학생의 회복탄력성이 매개하고 있었고, 부모가 지지원인 경우 삶의 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의 삶의 만족도는 관계적 요인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으며, 청소년기는 친구 관계가 중요해지면서 상대적으로 부모의 영향력이 작아지는 시기이지만 부모의 지지는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Lee(2007)는 가정폭력을 경험한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어떠한 보호요인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 밝혀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보호요인 중 가족 수준에서 부모의 긍정적 양육 행동과 부모자녀 간 개방적 의사소통 요인이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사회적 탄력성(공감, 협동성, 주장성), 학업적 탄력성(학교 흥미, 학업태도, 학교 규범) 발달에 매개적으로 작용함으로써 건강하고 적응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폭력을 심각하게 경험한 청소년일지라

도 주변에 다양한 보호요인이 존재한다면, 부정적으로 가정폭력이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약화되어 가정폭력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도 보다 적응적이고 탄력적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회복탄력성의 위험요인은 심리적, 정서적, 행동적 문제를 발전시킬 가능성을 증대시키거나 기대되는 능력에 도달되는 것을 방해하는 조건들을 의미한다(Hong, 2006). 위험요인 중에서는 가족의 위험요인이 다른 층위의 요인들보다 청소년에게 더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Jeong 외(2009)는 인문계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부부갈등과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와 회복탄력성이 부부갈등과 학교생활적응을 매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부부갈등의 위험수준이 증가하더라도 고등학생의 회복탄력성이 높으면 위험 요소의 직접적인 영향력은 학교생활적응을 위협하는 데에 의미가 없는 수준으로 떨어진다고 하였다. Kim과 Lim(2013)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으로서 가족 수준인 과잉적 양육과 회복탄력성, 학교적응의 구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과잉적 양육은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떨어뜨리고, 회복탄력성, 학교적응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자녀에 대한 부모의 관심도 중요하지만 사소한 일에 대한 간섭이나 능력 이상의 기대는 청소년의 삶의 만족도를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적절성이 중요함을 시사하였다. Han과 Do(2008)는 가정의 위험요인과 회복탄력성, 또래 관계의 질이 청소년의 문제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중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가정의 위험요인을 가족갈등, 가족생활로 구성된 통제 가능 영역과 가족의 구조적 결핍, 사회경제적, 의료적 위험, 가족 환경 등으로 구성된 통제 불가능 영역으로 나누어 측정하였다. 그리고 각 변인의 경로를 탐색한 결과 부부갈등이나 부모 상실, 가족 해체와 같은 가정의 위험요인은 청소년의 문제 행동에 직접적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이러한 가정의 위험요인은 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또래관계의 질을 통해 문제 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가정의 위험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은 회복탄력성이 문제 행동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매개역할이 나타났다.

### 3.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주고 받는 미시체계로서 가족환경은 Bronfenbrenner의 생태체계적 관점을 사용하여 폭넓게 연구되어 왔다(Adamsons, Few-Demo, Proulx, & Roy, 2022). Kim과 Jeon(2021)은 생태체계적 관점을 적용한 개인, 미시체계, 중간체계, 외체계, 거시체계로 범주화하여 청소년학에서의 연구동향을 분석한 결과 다층적 맥락 구조 중 미시체계 영역으로 분류된 가정에 대한 연구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혔다. Hwang(2011)은 청소년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으로 구분하여 생태체계적 관점으로 접근하여 분석한 결과, 보호체계 요인 중 부모와의 긍정적 관계가 청소년 삶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의 발달과 부모자녀관계는 개인과 환경과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으로 순환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는 가족체계론적 관점에서 설명할 수 있다. 그 중에서 선행연구는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의 발달이나 회복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주로 주목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부모와 청소년 자녀 간의 상호작용은 부모 양육 태도와 의사소통 방법으로 설명되고 있다. 특히, 부모 양육 태도는 부모자녀관계를 결정하며 청소년의 성격 및 심리 정서와 자녀의 사회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데(Gang, Kim, & No, 2012), 양육 행동은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적이므로 실제적인 행동보다 자녀의 입장에서 부모와의 관계를 어떻게 지각하고 해석하는지가 자녀의 심리적 적응에 중요하다. Park(1998)은 빈곤 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 연구에서 부모가 지지적이고 긍정적일수록 해당 자녀의 회복탄력성은 더욱 높다고 하였다. Kim(2010)은 자녀가 긍정적이고 성취적으로 부모의 행동을 지각할수록 회복탄력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특히 부모의 애정적인 태도는 청소년의 대인관계와 활력성에서 정적 관계를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Lee와 Shin(2006)은 어머니와 아버지의 애정적이고 성취적인 태도가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준다고 하였고, Kim(2009)은 부모의 애정적인 태도는 고등학생의 자존감 형성 및 회복탄력성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다문화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Kim과 Shin(2017)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민주적일수록 청소년의 탄력성이 높아지고 있었다.

부모자녀관계에서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은 자녀가 느끼는 행복과 불행감에 영향을 미친다(Ahn & You, 2013; Lee, Jeong, & Lee, 2009). 의사소통은 부모자녀가 마음을 주고받는 통로이다. 부모자녀 간의 의사소통이 순기능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청소년기의 다양한 문제와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되고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원만한 사회 적응을 돕는 촉진제가 될 수 있지만, 역기능적일 경우 청소년 자녀의 우울과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주원인이 될 수 있다(K. Kim, 2014). 부모와의 의사소통 유형과 청소년 우울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알아본 연구(Kim & Kim, 2016)에서는 청소년 여학생에게서만 부모와의 폐쇄형 의사소통과 우울 사이에서 조절효과가 나타나 회복탄력성 증진이 여자 중학생 집단에서 우울을 치료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회복탄력성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의 대인예민성, 불안,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연구(Hong & Lee, 2014)에서는 어머니와 자녀관계와 우울 간의 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이 조절효과가 나타났고, 부모와의 폐쇄적인 의사소통을 경험하는 자녀일지라도 회복탄력성이 높으면 우울을 덜 경험한다고 하였다. 이는 부모와의 관계와 청소년의 우울에 미치는 영향 사이에서 회복탄력성이 완충작용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족체계론적 관점에 따르면 부모자녀관계가 청소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개인 수준에서의 변화 또한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선행연구에서는 가족과 관련한 수업을 통한 청소년의 개인 수준의 변화가 청소년의 자기이해, 자존감, 부모됨에 대한 인식, 의사소통 능력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Jun et al., 2017; Oh & Choi, 2019), 가족체계 내의 부모자녀관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Jeong & Lee, 2022).

이처럼 회복탄력성과 부모자녀관계를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결과, 회복탄력성과 부모자녀관계는 정적 상관을 가지고 있어 기술·가정 가족수업에 참여하는 중학생의 회복탄력성 향상을 통해 청소년 가정의 가족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청소년 자체의 문제 행동의 감소와 더불어 건강한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가정과의 교과목표를 이루는데 효과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 I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이 연구의 대상은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목의 핵심개념 중 ‘관계’와 ‘안전’에서 회복탄력성과 부모자녀관계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과 적용 연구(Joo & Choi, 2020)에 참여한 학생들이다. 해당 연구에서는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목의 가족수업에서 가족형태, 가족관계, 가족갈등, 성폭력, 가정폭력, 가족상실의 주제로 교수·학습 과정안을 개발하여 적용하였고, 가족수업이 중학생의 회복탄력성과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가족수업의 효과 검증 이후 해당 수업에 참여한 학습자의 수업참여도와 회복탄력성, 부모자녀관계, 각 변인들 간의 메커니즘을 알아보는 후속연구로서 연구대상은 모두 동일하며, 세종시에 소재하는 A 중학교 2학년 72명과 B 중학교 3학년 122명인 총 194명이다. 이 연구 대상자의 표본 수는 G\*Power 3.1 program을 사용하여, 회귀분석에 필요한 유의수준 .05와 중간 정도의 효과크기 .15, 검정력 .95, 변수 총 13개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을 때, 최소 표본수가 189명인 것으로 나타나 이 연구는 적정 표본 수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왔다. 두 학교 연구대상의 집단 간 동질성 검사 결과 일반적 특성에 해당하는 모든 하위 항목에서 집단 간에 유사한 분포를 보였고, 사전 검사에서 집단 간 회복탄력성과 부모자녀관계 점수 차이를 비교분석한 결과 연구참여 학생들의 학교별로 변인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자료분석시에는 가족수업 전후에 해당하는 두 시점의 패널 자료(two-wave panel data)를 사용하여 연구대상자의 성별과 학교, 기존의 회복탄력성과 부모의 연령,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 가정의 화목 여부, 기존의 부모자녀관계를 모두 통제하였다. 또한 중학생의 회복탄력성과 부모자녀관계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과 적용 연구(Joo & Choi, 2020)에 참여하였던 A 중학교와 B 중학교 학생 전체 194명을 동일하게 연구 대상으로 하여, 가족수업 전 실시한 사전검사와 가족수업 후 실시한 사후검사지에서 불성실하게 응답한 3부를 제외한 191부를 대상으로 통계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성별은 남자 89명(46.60%), 여

자 102명(53.40%)이고, 연구대상의 가정은 부모가 모두 있는 경우(98.00%)가 대부분이었으나, 부-자녀관계는 아버지가 있는 경우 190명과 모-자녀관계는 어머니가 있는 경우 188명을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생활수준은 중간정도(44.50%), 가정 분위는 대체로 화목하다(52.00%)라고 생각하는 학생이 많았고, 아버지 연령은 46~50세(43.60%), 어머니 연령은 41~45세(52.40%)가 가장 많았다. 가족 구성원 중에서 주로 대화하는 상대(85.50%)와 가장 친밀하다고 여기는 상대(69.70%)는 모두 어머니로 나타났다.

## 2. 측정도구

### 1) 종속변수: 부모자녀관계

연구 대상자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애정적 관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Perceived Parent-Child Affection scale (Roberts & Bengtson, 1993)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아버지와 어머니 각각에 대하여 응답자가 지각한 부모와의 관계를 표기하도록 되어 있으며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 문항 내용은 동일하다. 아버지와 어머니가 부재할 경우 혹은 일상생활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역할을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응답하도록 여성 어른, 남성 어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Likert 척도 응답은 6단계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애정 정도를 ‘아주 조금(1)’부터 ‘매우 많이(6)’까지 체크하는 것이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역할에 해당하는 여성 어른, 남성 어른이 부재하다고 느끼는 경우 ‘해당없음’에 체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아버지 또는 어머니와의 응답 점수가 높을수록 애정적 결속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확인으로 Cronbach's  $\alpha$ 를 산출 결과,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 .93, 어머니와의 관계 .89로 높게 나타났다.

### 2) 독립변수: 수업참여도

중학교 기술·가정 가족수업에 대한 연구 대상자의 참여 정도는 수업 활동에서의 행동적, 정서적 참여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Skinner, Kinderman과 Furrer(2009)가 개발한 척도에서

16번 문항을 추가 번안하여 수정한 Lee(2014)의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행동참여 5문항, 정서참여 5문항, 행동이탈 5문항, 정서이탈 12문항으로 총 27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행동참여는 ‘나는 수업 중에 잘하려고 열심히 노력한다’와 같은 학습 활동을 시작하고 참여하는 동안 학생의 주의, 노력, 지속성을 평가하는 문항이고, 정서참여는 ‘나는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등의 수업 중 흥미와 만족, 열정, 즐거움 등의 정서를 평가하는 문항이다. 행동이탈과 정서이탈 문항은 ‘나는 수업시간에 다른 생각을 한다’ 또는 ‘나는 수업 하는 도중에 지루함을 느낀다’ 등의 역채점 문항으로, 이 연구에서는 행동참여 5문항과 정서참여 5문항의 총 10문항만을 활용하여 측정하였다. 응답 방식은 Likert식 ‘전혀 그렇지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5단계 평정척도식이며, 수업참여도 척도의 점수가 높을수록 행동적, 정서적 참여가 높았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확인으로 Cronbach's  $\alpha$ 를 산출한 결과 .91인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 3) 매개변수: 회복탄력성

연구 대상자의 회복탄력성은 청소년용 회복탄력성 척도 YKRQ-27(Shin, Kim, & Kim, 2009)을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통제성(원인분석력, 감정통제력, 충동억제력), 긍정성(감사하기, 생활만족도, 자아낙관성), 사회성(자아확장력, 소통능력, 공감능력)의 3가지 요인과 요인별로 각각 3문항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총 27문항이다. 응답은 Likert식 ‘전혀 그렇지않다(1)’부터 ‘매우 그렇다(5)’까지 5단계 평정척도식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응답자의 회복탄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 확인으로 Cronbach's  $\alpha$ 를 산출한 결과 .92인 높은 신뢰도를 나타냈다.

### 4) 통제변수

본 연구는 독립변수인 중학교 기술·가정 가족수업의 참여도와 종속변수인 부모자녀관계에 모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대상자의 성별과 학교, 기존의 회복탄력성 수준이라는 개인 특성과 부모의 연령,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 가정의 화목 여부, 기존의 부모자녀관계라는 가족 특성을 통제변수에 포함하였다. 개인 특성인 성별(남, 여)과 학교(A학

교, B학교), 가족특성 중 부모의 연령(40대 이하, 50대 이상),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중 이하, 중상 이상), 가정의 화목여부(대체로 화목 이하, 매우 화목)은 더미변수로 측정하였다.

### 3. 연구 설계

중학교 기술·가정 수업시간에 가족수업의 참여 정도가 중학생의 회복탄력성 향상을 통해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매개효과를 알아보고자 <Figure 1>과 같이 연구모형을 설정하여 가족수업에 참여 정도가 회복탄력성을 매개로 하여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였다. 또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가능성 있는 개인 및 가족 특성 변수는 통제 변인에 포함시켰다.

이 연구는 중학생의 회복탄력성과 부모자녀관계 향상을 위한 교수·학습 과정안 개발과 적용 연구(Joo & Choi, 2020)의 후속연구로 진행되어 두 시점의 패널 자료(two-wave panel data)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장점을 활용할 수 있었다. 즉, 첫 번째 시점의 종속변수값을 통제변수로 투입하여 종속변수의 기본수준을 상정함으로써 실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사회과학 연구대상이나 연구문제에서 효과적인 방법(Johnson, 2005) 활용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가족수업 참여도와 부모자녀관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였다.

### 4. 자료 분석

이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분석은 SPSS Statistics Win 23.0 프로그램과 PROCESS macro v.3.3을 사용하여 다음의 절차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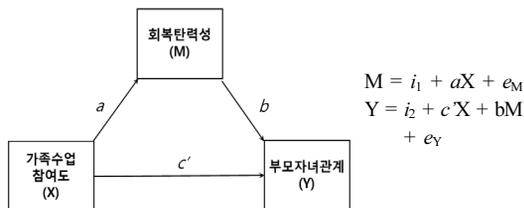


Figure 1. Hypothesis model

통계 처리하였다. 첫째, 가족수업 후 가족수업에 대한 학습자의 참여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고, 주요 변수들의 상관 분석 및 VIF를 실시하였다. 둘째, 가족수업에 참여한 정도가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직접효과와 회복탄력성을 통한 간접효과가 있는지 검증하기 위해 Hayes(2015)의 PROCESS macro를 이용한 매개 분석을 실시하였다. 수업참여도를 독립변인(X), 부모자녀관계를 종속 변인(Y), 회복탄력성을 매개 변인(M)으로 하여 단일 매개 변인이 존재하는 모형을 분석하였다(Model 4). 마지막으로, 매개 분석 이후 신뢰구간 95%에서 재추출한 표본 수를 5,000개로 설정한 부트스트래핑(bootstrapping)을 실시하여 매개효과와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 IV. 연구결과

### 1. 주요 변수의 상관 분석

이 연구의 주요 변수의 상관관계는 <Table 1>과 같고, 모든 변수 간의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상관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족수업 참여도와 회복탄력성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고( $r=.49, p<.01$ ), 가족수업 참여도와 어머니-자녀관계( $r=.16, p<.05$ ), 가족수업 참여도와 아버지-자녀관계( $r=.17, p<.05$ )에서도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회복탄력성과 어머니-자녀관계( $r=.41, p<.01$ ), 회복탄력성과 아버지-자녀관계( $r=.37, p<.01$ )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부모자녀관계에서는 모-자녀관계와 부-자녀관계에서 정적 상관을 보여( $r=.70, p<.01$ ), 어머니와 자녀 관계에서의 높은 애정적 결속 정도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서의 애정적 결속 정도와 관련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주요변수를 포함한 연구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공차(Tolerance)와 분산팽창지수(VIF)를 확인한 결과 모두 각각 0.1 이상, 10.0 이하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이 가족수업 참여도와 부모자녀관계와 상관관계가 있으며, 가족수업에 참여 정도와

참여 학생의 회복탄력성 및 청소년 자신이 생각하는 부모와의 애정적 결속 정도가 유의한 관련성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준다.

2. 모형 분석

중학교 기술·가정 교과와 가족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수업참여도와 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부모자녀관계의 매커니즘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가족수업에 참여한 정도가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회복탄력성의 간접효과를 검증하는 매개 분석을 실시하였다. SPSS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가족수업 참여도가 회복탄력성을 통해 어머니와 자녀 간의 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가족수업 참여 정도에 따라 자신의 회복탄력성을 경유하여 어머니와의 관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업에 참여 정도가 높을수록 회복탄력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더 높은 애

정적 결속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참여한 학생들의 성별, 소속학교, 부모의 연령, 가족의 사회경제적 수준, 가정의 화목 여부, 수업 적용 전 회복탄력성과 부모자녀관계를 통제 하였을 때, 수업참여 학생의 수업참여도가 1점 증가할 때마다 회복탄력성 점수가 0.32만큼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 $\alpha=0.32, p<.001$ ), 수업참여도가 동일하다고 할 때 회복탄력성이 1점 증가할 때마다 어머니와의 관계 점수가 0.67만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0.67, p<.001$ ). 수업참여도가 1점 더 높아질수록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어머니와 청소년 자녀 간의 관계가 0.21만큼 향상되는 간접적인 효과를 보였다( $ab=0.21, p<.001$ ).

가족수업 참여도가 회복탄력성을 매개하여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분석 결과를 보면, 가족수업 참여도는 회복탄력성을 통해 아버지와와의 관계에서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가족수업 참여도가 높을수록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에 유의하게 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아버지와와의 관계도 높게 나타났다. 가족수업 참여도가 1점 증가할 때마다 회복탄

Table 1. Correlations among academic engagement, resilience and parent-child relationships

	가족수업 참여도	회복탄력성	모자녀관계	부자녀관계
가족수업 참여도	-			
회복탄력성	.49**	-		
모자녀관계	.16*	.41**	-	
부자녀관계	.17*	.37**	.70**	-
<i>M(SD)</i>	3.96(0.60)	3.86(0.53)	5.08(0.88)	4.63(1.13)

\* $p<.05$ , \*\* $p<.01$

Table 2. Resilience as a mediator of the association between the academic engagement and mother-child relationships  
N=188

		회복탄력성(M)			모자녀관계(Y)			
		Coeff.	SE	p	Coeff.	SE	p	
가족수업 참여도(X)	<i>a</i>	0.32	0.05	<.001	<i>c'</i>	-0.09	0.09	.34
회복탄력성(M)		-	-	-	<i>b</i>	0.67	0.13	<.001
Constant	<i>i<sub>1</sub></i>	0.56	0.26	<.05	<i>i<sub>2</sub></i>	1.76	0.47	<.01
$R^2=0.51$				$R^2=0.44$				
$F(8, 179)=23.63, p<.001$				$F(9, 178)=15.55, p<.001$				

\* $p<.05$ , \*\* $p<.01$ , \*\*\* $p<.001$

Note. 성별, 부모연령, 생활수준, 화목 여부, 소속학교, 기존의 회복탄력성과 부모자녀관계 점수는 통제됨

Table 3. Resilience as a mediator of the association between the academic engagement and father-child relationships *N*=190

	회복탄력성(M)			부자녀관계(Y)				
	Coeff.	SE	<i>p</i>	Coeff.	SE	<i>p</i>		
가족수업 참여도(X)	<i>a</i>	0.33	0.05	<.001	<i>c'</i>	-0.10	0.11	.37
회복탄력성(M)	-	-	-	<i>b</i>	0.93	0.16	<.001	
Constant	<i>i<sub>1</sub></i>	0.52	0.26	<.05	<i>i<sub>2</sub></i>	0.73	0.55	<.01
			<i>R</i> <sup>2</sup> =0.52				<i>R</i> <sup>2</sup> =0.53	
			<i>F</i> (8, 181)=24.96, <i>p</i> <.001				<i>F</i> (9, 180)=22.61, <i>p</i> <.001	

\**p*<.05, \*\**p*<.01, \*\*\**p*<.001

Note. 성별, 부모연령, 생활수준, 화목 여부, 소속학교, 기존의 회복탄력성과 부모자녀관계 점수는 통제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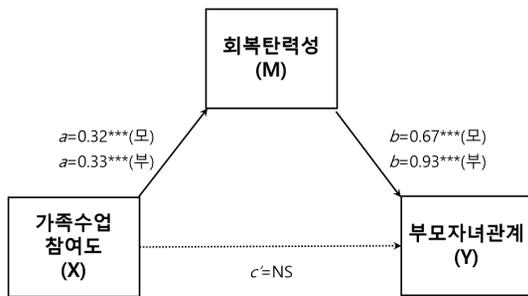


Figure 2. Final model

력성 점수가 0.33만큼씩 증가하였고(*a*=0.33, *p*<.001), 수업참여도가 동일할 때 회복탄력성이 1점 증가할 때마다 아버지와 의 관계 점수가 0.93만큼 증가하였다(*b*=0.93, *p*<.001). 수업참여도가 1점 더 높아질수록 회복탄력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아버지와 자녀 간의 애정적 관계가 0.31만큼 향상되는 간접효과가 나타났다(*ab*=0.31, *p*<.001).

이와 같이 가족수업 참여도와 부모자녀관계 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분석한 결과, 가족수업 참여도와 부모자녀관계 간에 회복탄력성이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매개효과 결과를 도식화하면 <Figure 2>와 같다.

이러한 완전 매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부트스트래핑 기법을 적용하여 확인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부트스트래핑은 원표본이 모집단의 특성을 잘 반영한다고 가정하고, 원표본 내의 관찰치들을 반복적으로 복원 재추출하여, 새로운 표본을 생성한다. 분석 과정을 통해 추정된 값들은 오름차순으로 정렬되어, 95% 신뢰구간에 따라

Table 4. Confidence interval of the mediation effects

종속변인	계수	표준오차	95% 신뢰구간	
			하한값	상한값
모-자녀관계	.21	.09	.10	.34
부-자녀관계	.31	.08	.16	.47

상한 경계와 하한 경계가 결정되며 이 신뢰구간 안에 0을 포함하지 않으면 추정된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할 수 있다 (Hayes, 2015). 간접효과의 신뢰구간 95%에서 재추출한 표본수를 5,000개로 상정하여 부트스트래핑한 결과, 어머니와 자녀 간의 간접효과(*ab*=0.21)의 편의수정 부트스트랩 신뢰구간 (0.10-0.34)은 0보다 크게 나타났고, 아버지와 자녀 간의 간접효과(*ab*=0.31)도 부트스트랩 신뢰구간(0.16-0.47)이 0보다 높았다. 즉,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회복탄력성을 매개변수로 하여 어머니와의 애정 관계에서 매개효과 계수의 하한값은 0.10이고 상한값은 0.34로 0값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의 회복탄력성을 매개변수로 한 아버지와 의 관계에서 살펴본 결과, 매개효과 계수의 하한값은 0.16이고 상한값은 0.47로 0값을 포함하지 않아 간접효과가 있었다. 요약하면, 가족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 학습자는 자신의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고, 회복탄력성이 높아지면 부모자녀 간의 관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중학교 기술·가정 가족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수업참여도와 회복탄력성, 부모자녀관계 간의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가족수업에 참여하는 정도와 부모자녀관계 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족수업 참여도와 회복탄력성, 부모자녀관계 변인 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확인되었다. 수업참여도와 회복탄력성, 수업참여도와 부모자녀관계, 회복탄력성과 부모자녀관계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부모자녀관계에서는 모-자녀관계와 부-자녀관계에서 정적 상관이 나타나 어머니와 자녀 관계에서의 높은 애정적 결속 정도는 아버지와 자녀 관계에서의 애정적 결속 정도와 관련성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이 수업참여도와 부모자녀관계와 상관관계가 있으며, 가족수업에 참여 정도와 참여 학생의 회복탄력성 및 청소년 자신이 생각하는 부모와의 애정적 결속 정도가 관련성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로써 모든 변인들이 각각의 예측 변인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생태체계적 관점에서 청소년의 탄력성과 부모자녀관계의 정적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Hwang (2011)과 Kim과 Shin(2017)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였다.

둘째, 회복탄력성을 통해 가족수업에 참여한 정도가 부모자녀관계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매개 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업 중 학습자의 참여 정도에 따라 자신의 회복탄력성을 통하여 부모와의 관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수업에 행동적으로 정서적으로 적극 참여한 학생들은 회복탄력성이 더 많이 향상되고, 회복탄력성이 높을수록 부모와의 관계에서 느끼는 애정적 결속 정도에 더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가족수업에 적극 참여할수록 자신의 회복탄력성이 향상되고, 이를 통하여 부모자녀관계에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Kim 외(2019)의 연구에서와 같이 교과에서 지향하는 목표성취정도를 학습자 개인의 수업참여도에 따라 확인할 수 있는 결과로서, 정규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과 수업에서 학습자의 적극적인 수업참여의 중요성을 나타

낸다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회복탄력성과 부모자녀관계 향상을 목표로 하는 가족수업의 효과를 보여주며, 가족수업은 청소년 스스로 삶의 어려움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잠재적인 힘을 길러주게 하여 청소년 가정에서의 가족관계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개인과 환경 간의 상호관계에서 청소년 개인의 변화가 미시체계에 해당하는 가족관계의 변화를 이끌어 낸다는 점에서 가족체계론적 관점(Walsh, 2011)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으므로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다. 첫째, 자료 수집에 있어서 이 연구는 세종시의 두 학교 194명의 중학생을 편의 표집하였기에 모형을 검증하는 데에 필요한 표본 수는 충족하였으나 대표성을 갖는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자료의 한계로 인해 인과 관계를 검증하기에 어렵다. 이 연구는 두 시점을 활용하여 횡단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으나 여전히 역인과성(reverse causality)의 오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세 시점 이상의 종단 자료를 통해 가정과의 가족수업이 개인의 회복탄력성을 향상시키고 장기적으로 가족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의미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셋째, 이 연구는 가족수업 참여도와 부모자녀 간의 애정적 결속에 있어서 회복탄력성의 간접효과만을 검증하는 단순 매개 모형을 설정하였다는 한계점이 있다. 추후 연구에서는 고급통계를 활용하여 가족수업과 청소년의 회복탄력성, 부모자녀관계의 잠재변인 간의 구조적 관계를 파악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즉, 청소년의 회복탄력성을 통해 변화될 수 있는 다양한 가족 관련 요인과 수업을 통해 직접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체계 내의 요인을 고려한 다중매개모형 분석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넷째, 이 연구는 청소년의 부모자녀관계를 이해하는 데에 있어서 청소년의 응답에만 의존하고 있으므로 정보원 편향(informant bias)에 의한 오류가 있을 수 있다. 특히 이 연구의 초점은 청소년기 부모자녀관계이므로 가족 수준의 관계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 후속 연구에서는 쌍(dyad)으로 된 자료를 통해 가족수업이 청소년과 부모에게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효과를 검증하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에서는 연구자가 개발한 교수·학습

과정안에 따른 수업의 효과를 알아본 후, 학습자의 수업참여도에 따라 수업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을 검증한 후속 연구로서 수업참여도가 원인 변인으로 사용되었다. 수업참여도는 수업참여자의 학습동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수업전과 수업 과정에서 가지고 있는 행동적, 정서적 특성을 수업 후에 측정해야 하는 원인 변인으로서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결과 변인으로서 측정될 수 있는 가족수업에 대한 만족도와 참여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가족 단원에서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는 수업에 대한 고민과 교수·학습 방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이러한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는 가족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역량 향상으로도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상되는 과정을 보여준다는 의의가 있다. 추후 학교와 가정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관계를 강화하고, 가족수업을 지역사회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평생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관계를 이루는 모든 체계에서 양방향의 교육 참여가 가능하여 가족수업의 효과가 증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일회성, 일방향적 교육프로그램이 아닌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가정과의 가족수업을 통해 개인의 회복탄력성, 관계형성능력 향상을 이루어 가정교육에서 지향하는 교과 목표가 현재와 미래 삶에서 지속적으로 실천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Adamsons, K., Few-Demo, A. L., Proulx, C., & Roy, K. (2022). *Sourcebook of family theories and methodologies: A dynamic approach*. Minnesota: Springer.
- Ahn, N. Y., & You, Y. D. (2013). The relationships between perceived parents-adolescents communication and adolescents' depression/happiness- Focused on the mediation effect of negative automatic though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4(5), 210-3215.
- Cho, H. S. (2005). The relationship among adolescent's ego-resiliency parental attachment,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Student Guidance and Counseling*, 23, 57-81.
- Cho, H. S., & Jang, Y. O. (2016). The effects of flipped learning applied to home economics education on academic engagement,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social interac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8(4), 1-20.
- Choi, K., Chun, M. J., Ahn, H. Y., Jin, H. N., & Do, S. L. (2013). Mediation effect of school engagement in the relation between perceived teacher-student relationships and peer relationships, and student achievement of middle school students. *Asian Journal of Education*, 14(4), 281-306.
- Gang, B. J., Kim, E. H., & No, C. R. (2012).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stress and school life satisfaction: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resiliency among father-headed families and mother-headed families.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23, 29-50.
- Han, H. A., & Do, H. S. (2008). The effects of family risk factors, ego-resilience and quality of peer relationships on adolescent problem behaviors.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9(1), 87-101.
- Hayes, A. F. (2015).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H. G. Lee, Trans.). NewYork: The Guilford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2013).
- Hong, E. S. (2006). Conceptual understanding of resilience and instructional suggestion. *Korean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41(2), 45-67.
- Hong, Y. J., & Lee, M. G. (2014). Effects of parent-adolescent relationship on anxiety, interpersonal sensitivity and depression: Moderating effects of resilienc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21(10), 445-474.
- Hwang, H. W. (2011). A research on protective factors influencing on adolescents' quality of life.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3), 1-26.
- Jeong, B. H., Kim, H. K., & Lee, Y. S. (2009). The influences of perceived marital conflict on school adjustment of general high school students- Focused on social support and ego-resilience.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al Forum*, 29(1), 87-101.
- Jeong, J. Y., & Lee, S. Y. (2022). Effect of middle-aged parent understanding education for middle school students on parent-child relationships. *Journal of Korean Home*

-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34(3), 25-47.
- Johnson, D. (2005). Two-wave panel analysis: Comparing statistical methods for studying the effects of transi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7(4), 1061-1075.
- Joo, H. J., & Choi, S. E. (2020). The effects of storytelling family classes using picture books on the resilience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of adolescents: Focusing on the core concepts of 'relationship' and 'safety' in middle school technology and home economic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32(1), 167-184.
- Jun, M. K., Lee, E. J., Yu, N. S., Wang, S. S., & Choi, S. E. (2017). Effectiveness of parenting education program for adolescent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29(4), 31-47.
- Kim, H. G. (2009). *A study on relation between perceived parental rearing attitude and self-esteem and ego-resilience of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ChungNam, Korea.
- Kim, J. H. (2011). *Resilience*. Goyang: Wisdomhouse.
- Kim, J. R. (2014).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intrinsic motivation, learning strategies, academic engagement, and academic achievement: Focusing on gender differences of high school students. *Asia Journal of Education*, 15(1), 93-113.
- Kim, J. S., & Shin, W. W. (2017).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cosystemic factors and ego-resilience of adolescents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7(1), 469-477.
- Kim, K. M. (2010). *The correlations between parental disciplinary styles and subjective well-being of students in middle & high school*. Unpublished master's thesis, Jeonbuk National University, Jeonbuk, Korea.
- Kim, K. R., Lee, S. N., & Maeng, L. S. (2019). Awareness and participation for Newsports of middle school students influence to effect of physical educator.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Wellness*, 14(2), 73-83.
- Kim, S. E., & Kim, S. H. (2016). Moderating effects of resilience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communication patterns with parents and the level of depression in middle school students by gender. *Korea Journal of Counseling*, 17(2), 239-256.
- Kim, S. Y. (2014). *The effects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and adolescents' dysfunctional beliefs on adolescents'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Kim, T. H., & Jeon, Y. W. (2021). Analysis of trends in youth studies: An application of ecological systems theory. *Journal of Future Oriented Youth Society*, 18(1), 75-93.
- Kim, Y. M., & Lim, Y. S. (2013). Structural analysis of parental over-involvement, ego-resilience, school adjustment, life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Youth Welfare*, 15(2), 343-366.
- Lee, C. H., Jeong, J. S., & Lee, M. G. (2009). The influence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on adolescent's depression: Mediation effect of self-esteem and irrational belief. *Korean Journal of Health Psychology*, 14(2), 433-448.
- Lee, H. J. (2014). *The mediating effect of basic psychological needs on teacher creativity and student particip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 Lee, H. M. (2016). *A study on the effects of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perceived by adolescents on their resilience.- With the types of communication as a mediating variable*.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ChungBuk, Korea.
- Lee, S. H., Min, H. Y., Kwon, H. J., Jeong, Y. J., Han, Y. J., Choi, Y. K., & Kwon, G. N. (2012). *Parent education*. Seoul: Hakjisa.
- Lee, S. J. (2007). Mediating effect of protective factor on family violence experience of adolescents and resilience. *Family and Culture*, 19(1), 147-171.
- Lee, Y. J., & Shin, J. Y. (2006). Relationship between ego-resilience, school life maladjustment, and parental educational attitude of junior high school students. *The Journal of the Institute of Social Science*, 5, 111-127.
- Min, G. R., & Lee, H. S. (2013). The relationship between perceived social support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of middle school students-mediation effect of ego-resilience. *Youth Facilities Environment*, 11(4), 7-16.
- Ministry of Education (2015).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 curriculum (Notification No. 2015-74)*. Sejong: Author.

- Oh, E. Y., & Choi, S. E. (2019). A case study of parenting education program for students with school-maladjustment.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31(3), 117-134.
- Park, H. S. (1998). *The school resilience of Korean adolescents in pover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eoul University, Seoul, Korea.
- Roberts, R. E. L., & Bengtson, V. L. (1993). Relationships with parents, self-esteem,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young adulthood: A further examination of identity theory. *Social Psychology Quarterly*, 56, 263-277.
- Shin, W. Y., Kim, M. G., & Kim, J. H. (2009). Developing measures of resilience for Korean adolescents and testing cross, convergent, and discriminant validity. *Journal of Korean Youth Research*, 20(4), 105-131.
- Skinner, E. A., Kinderman, T. A., & Furrer, C. F. (2009). A motivational perspective on engagement and disaffection: Conceptualization and assessment of children's behavioral and emotional participation in academic activities in the classroom.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69(3), 493-525.
- Song, H. S., & Sung, S. Y. (2010).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on school adjustment and life satisfaction of middle school students: Mediated effect of ego-resilience and self-control.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and Psychotherapy*, 27(1), 129-157.
- Walsh, F. (2011). *Normal family processes: Growing diversity and complexity* (4th ed.). NewYork: The Guilford Press.
- Yoon, S. H. (2018). *Development of practical problem focused programs and teaching-learning process plans for healing education in the home economics edu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 You, Y. J., Kim, S. O., & Kim, G. S. (2018). *Family relations*. Seoul: Kyomunsa.

<국문요약>

본 연구는 중학교 기술·가정 가족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의 수업참여도와 청소년의 회복탄력성과 부모자녀관계의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중학생이 가족수업에 참여하는 정도와 부모자녀관계 간에서 회복탄력성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연구대상은 세종시 소재 중학생 남녀 194명을 대상으로 연구자료를 수집하였으며, PROCESS macro (Model 4)를 이용하여 부트스트래핑을 이용한 매개효과 검증방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가족수업 참여도와 회복탄력성, 부모자녀관계 변인 간의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둘째, 가족수업 참여도와 부모자녀관계 간에서 회복탄력성은 완전매개효과를 보였다. 수업 중 학습자의 참여 정도에 따라 자신의 회복탄력성을 통하여 부모와의 관계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는 가족수업에 참여하는 학습자만의 회복탄력성 향상으로도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인 방향으로 향상되는 메커니즘이 검증됨을 보여주어 가족수업의 중요성을 시사한다.

■논문접수일자: 2022년 11월 25일, 논문심사일자: 2022년 12월 7일, 게재확정일자: 2022년 12월 21일